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BONE GAP

가제 : 본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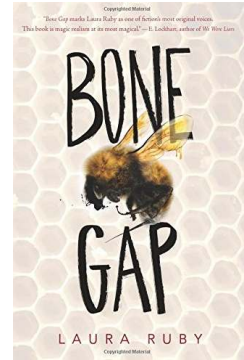
저자 : Laura Ruby

출판사: Balzer + Bray

발행일: 2015년 3월 3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역센 사내에게 납치 당한 아름다운 폴란드 소녀, 그녀를 찾지 않는 마을 사람들과 유일한 목격자 시골의 작은 마을 '본갭'에서 누구나 예쁘다고 칭찬해마지 않던 열아홉 살 소녀 로자.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폴란드 이민자 출신에 처음 본갭에 왔을 때도 소리소문 없이 나타난 일도 있고, 본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나타났다가 모습을 감추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사람들은 로자가 보이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로자와 특히 가깝게 지냈던 핀, 선 두 형제에게도 처음 겪는 일은 아니었다. 몇 년 전, 형제의 엄마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남자를 쫓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다급히 오리건으로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사람 하나 사라지는 일쯤 본갭에선 큰 일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은 다들 당연한 듯 받아들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핀은 로자의 실종이 그렇게 넘겨버릴 일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마을 축제가 열리던 날, 무지막지한 사내 손에 끌려 가는 로자의 모습을 핀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분명 로자는 두 눈이 마치 얼음이 박힌 듯 차갑게 빛나던 어떤 키 큰 남자의 손에 강제로 끌려갔다. 하지만 마을 사람 누구도 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핀은 그 남자의 얼굴을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정확하게 묘사할 수가 없었다. 로자의 남자친구인 형 선마저 로자를 찾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핀은 평소에 하도 괴짜 같은 말과 행동을 많이 한 탓인지 이번에도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놀림감만 되어버렸지만, 핀은 보고도 도와주지 못한 죄책감과 로자에 대한 염려, 그 무서운 납치범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편, 로자의 아름다움에 반해 일방적으로 그녀의 사랑을 요구하던 남자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지하 공간에 로자를 가둬 놓는다. 하지만 로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무슨 대가를 치르든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선과 핀 두 형제가 있는 본갭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결심한다.

### 아름다움의 대가와 엄청난 영향력, 마법과 미스터리가 결합된 가슴 아픈 이야기

이야기는 핀과 로자, 그리고 본갭에 사는 여러 마을 사람들의 눈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전해진다. 로자와는 정반대로 온 마을에 못생긴 외모로 유명한 소녀 피티와 핀 사이에서는 조심스레 사랑의 감정이 피어 오르지만, 사람들은 혼자 로자를 찾으려 애쓰는 핀을 보면서 당연히 그도 미모에 반해 형의 여자친구인 걸 알면서도 로자를 몰래 좋아했던 게 틀림 없다고 단정지어 버린다. 정작 핀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피티가 맞지만, 그 사실을 누구도 심지어 피티마저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핀이 로자의 납치 장면을 직접 보고도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전해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점점 전개될수록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로자는 본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핀은 자기 자신도 몰랐던 문제를 딛고 로자를 찾을 수 있을까? 이들의 여정을 쫓다 보면, 여성의 아름다움과 미적인 특징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들,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사람들, 아름다움이 발휘하는 영향력을 생각하게 된다. 판타지 요소가 가미된 낯선 세계와 현실을 오가는 독특한 등장인물들의 특징이 신선함을 안겨준다. 올해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의 YA 문학 부문에서 수상 후보로 선정된 소설이며 아마존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

**Average Customer Review:** ★★★★★ (61 customer reviews)

**Amazon Best Sellers Rank:** #17,468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27 in Books > Teens > Mysteries & Thrillers > **Fantasy & Supernatu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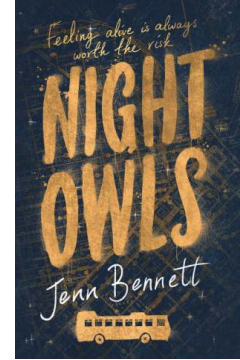
#32 in Books > Teens > Mysteries & Thrillers > **Romantic**

#110 in Books > Teens > Romance > **Fantasy**

### <저자 소개>

로라 루비(Laura Ruby)는 아동, 청소년, 성인 소설을 다수 발표한 작가로 현재 햄린 대학교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 예술석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에드가 상' 후보에 올랐던 미스터리 소설 『Lily's Ghosts』을 비롯해 『Good Girls』, 『Play Me』, 『Bad Apple』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NIGHT OWLS  
가제 : 밤 올빼미들  
저자 : Jenn Bennett  
출판사: Simon & Schust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시체를 직접 보고 그림을 그리려는 소녀와 밤마다 남몰래 그래피티에 심취하는 소년의 묘한 만남

고등학교 졸업반을 앞둔 여름방학, 베아트릭스에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한 박물관이 후원으로 개최되는, 꽤 큰 금액의 장학금이 걸린 그림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과 해부학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베아트릭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롤모델로 삼아 그와 같은 길을 걸기로 굳게 결심하고 부단한 노력 끝에 실력을 인정 받고 있지만, 그 큰 상금을 따내려면 더 어려운 것, 지금까지와 다른 한 발 더 성장한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세 살 때 엄마에게 가정을 보살피고 자식들을 키워내는 막중한 책임을 다 떠넘기고 집을 나가버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베아트릭스에게 그 장학금이 너무나 절실했다. 그리고 대회 우승뿐만 아니라 ‘의학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멋진 장래희망을 위해서라도 도약이 필요하다. 그리려면 낯은 해부학 서적을 교과서 삼아 그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 낯은 방법은? 바로 실제 사람의 내부 형태, 시체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그려보는 것뿐이다.

간호사로 일하는 엄마를 통해, 엄마가 다니는 병원의 해부 실험실에서 시체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아트릭스는 담당 교수를 찾아가 제발 시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하고 만다. 허탈한 마음에 집으로 발길을 돌리지만, 정신 없이 교수님을 설득하느라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막차가 끊기고 말았다. 망연자실한 베아트릭스는 한밤 중 거리에서 책을 만난다. 누가 봐도 은행강도로 착각할 만큼 온 몸을 시커먼 옷과 모자로 감싼 그 묘한 존재는 오로지 장학금을 따야 한다는 목표로만 채워진 베아트릭스의 여름방학 계획을 완전히 바꿔버린다.

책은 잘생기고 매력적인 외모가 눈에 띄는데다 인체를 보는 남다른 눈을 가진 베아트릭스는 시커먼 옷 속에 자리한 단단한 근육과 얼굴보다 더 멋진 체형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사람들의 왕래가 뜸해진 밤 늦은 시각, 샌프란시스코 곳곳을 돌며 그래피티를 남기는 것이 취미라는 책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가 그리는 작품들을 본 뒤 베아트릭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 예술이나 도시 파괴 행위냐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지며 도시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가 혹시 잭이 아닐까?

### 가슴 깊이 묻어둔 가족의 비밀, 예술적 열정으로 아픔을 풀어나가는 두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

종류는 전혀 다르지만, 그림으로 열정을 쏟아낸다는 공통점이 두 사람을 금세 친해지게 만드는 끈으로 작용하고, 둘은 묘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호감을 느낀다. 하지만 잭에게는 감히 물어볼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다. 두 사람이 만난 곳도 병원 앞이었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잭이 매주 병원을 방문하는 것 같은데 자신이 아픈 것 같지는 않다.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을까? 기나긴 밤, 어두운 거리에서 만난 잭과 베아트리체는 서로의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는 잭의 여동생, 그리고 아픈 동생과 잭의 존재를 감추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잭의 아버지, 그런 매정한 사람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잭 아버지의 실제까지, 베아트리체는 그가 밤거리를 돌며 그래피티에 몰입하는 진짜 이유를 서서히 알아간다.

흔치 않은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 쉽게 말할 수 없는 가족의 비밀을 간직한 잭과 베아트리체는 아직은 나약한 자신들을 압박하는 그 외부의 힘과 맞서고 이겨낼 더 강인한 힘을 서로에게서 찾는다. 가족의 이야기이자 열정 넘치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흥미로움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안겨준다.

### <저자 소개>

젠 베넷(Jenn Bennett)은 시각 예술 분야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다가 판타지 소설 작가로 전향했다. 독일에서 태어나 여러 대륙을 여행하고 현재 미국에 살면서 집필 활동을 쓰고 있다. 판타지 시리즈 소설인 『Arcadia Bell』 등을 발표했다.